



제목	군주의 거울, 키루스의 교육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21세기북스
발행일	2017. 2. 15.
저자	김상근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340
ISBN 또는 ISSN	978-8950963859

내용 요약

이 책은 2014년 가을에 방영된 EBS 인문학 특강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 시리즈와 삼성 세리CEO에서 강연한 내용과 2014년 상반기에 어느 대기업 사보에 연재했던 〈군주의 거울〉 시리즈를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원전 5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연속적으로 ‘아포리아’ 상태에 놓인 그리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시킨 군주의 거울로서의 고전을 소개하고 있다. ‘군주의 거울’이라는 장르는 서기 8세기에 유럽이 본격적으로 중세로 들어간 카롤링거 왕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인문학의 리더십 교과과정이다. 아포리아(aporia)란 원래 ‘막다른 곳에 다다름’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길 없음의 상태’, ‘출구 없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저자에 따르면, 그리스에 세번의 아포리아가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전쟁이고, 두 번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며,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다. 저자는 이러한 아포리아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군주의 거울로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플라톤의 『국가』,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군주의 거울 장르에 속하는 그리스 고전이 기록된 아포리아 시대의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2부는 아포리아 시대의 지도자가 성찰하고 갖추어야 할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다.